



장혁·이미숙 “연기 스타일이 닮았죠”

SBS ‘기름진 멜로’ 장혁, 코믹 연기 존재감

이미숙, 1인 2역 ... 카리스마 대결 눈길

MBC ‘돈꽃’ 이어 두번째 호흡 기대



장혁·이미숙

재벌가 대결 한옥에서 망하기 일보 직전 동네 중국집으로 옮겨왔지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도 두 사람의 존재감은 묵직하다.

MBC TV 주말극 ‘돈꽃’에 이어 SBS TV 월화극 ‘기름진 멜로’(사진)로 다시 만난 배우 장혁(42)과 이미숙(58) 이야기다.

‘돈꽃’에서 장혁과 이미숙은 철두철미한 복수를 꿈꾸는 강필주와 청아가(家)의 우아한 안주인 정말란으로 각각 변신해 극강의 카리스마 대결을 펼쳤다.

어머니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청아그림 손자임을 숨기고 오랜 기간 말란 앞에서 충성하며 신임을 얻은 필주는 결국 절정의 순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말란의 뒤통수를 쳤다.

필주의 계략에 의해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을 때는 시청자들이 ‘남녀관계’가 아닌지 의심했을 정도로 두 배우는 농밀한 눈빛과 호흡을 보여줬다. 이후 필주가 본심을 드러내면서부터는 치러는 쪽과 막으려는 쪽이 맞붙으면서 극도의 긴장감을 연출했다. 긴대사 없이 눈만 마주쳐도 화면을 꽉 채우는 두 사람은 ‘돈꽃’의 백미이자, 20%를 훌쩍 넘긴 시청률의 1등 공신이었다.

서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 한동안 마주치기 어

려울 것 같았던 두 사람은 예상을 엮고 ‘기름진 멜로’에서 바로 재회했다.

장혁은 쓰러져가는 중국집을 인수한 ‘조폭 사장’ 두칠성으로 변신, 한층 힘을 뺀 코믹 연기를 소화한 호평받는다. 덕분에 그는 서풍 역의 준호와 단새우 역의 정려원 등 후배들에게 분량을 크게 양보하고서도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이미숙은 빈틈 많고 어린 재벌가 사모님 진정혜와 미스터리 노인, 1인 2역에도 도전했다.

특히 미스터리 노인일 때는 철성의 중국집에 다짜고짜 찾아와 데시벨 높은 사투리를 퍼붓고, 짜장면이 담긴 그릇에 철성의 얼굴을 내리꽂는 등 거침없는 연기를 보여준다. ‘돈꽃’ 속 강렬한 모습들이 잠시 잊힌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연이어 같은 작품에 출연한 것은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한다.

두 배우는 싸이더스HQ에서 한술밥을 먹는 사이이기도 한데, 소속사 역시 “우연히 또 함께 출연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의 특별한 연을 강조했다. 언제 어디서 만나도 힘이 잘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소속사 설명이다.

싸이더스HQ 관계자는 16일 “두 배우는 연기를 준비하는 스타일부터 많이 닮았다”며 “두 사람 모두 촬영에 들어가기 전부터 캐릭터 분석에 굉장히 몰두하고 대본도 끊임없이 보는 편이다. 음성과 의상까지 미리 다 확인한다. 이미숙 씨는 장혁 씨를 보고 “날 닮았다고 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속사 내에서 두 사람 별명은 각각 ‘남자 이미숙’, ‘여자 장혁’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변신 감행에도 ‘돈꽃’과 비교하면 ‘기름진 멜로’ 시청률 성적은 5%대로 좋지 않다.

‘파스타’(2010), ‘질투의 화신’(2016)의 서숙한 작가 신작이자 한창 연기에 물이 오른 준호와 정려원, 그리고 무게감 있는 장혁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산만한 전개와 연출이 발목을 잡는다. 코믹과 로맨스도 소스와 면이 따로 노는 짜장면처럼 제대로 조리되지 못한 느낌이다. 그러나 장혁과 이미숙의 색다른 조합을 비롯해 헝기 넘치는 젊은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정혜가 새우의 엄마일 것이라는 시청자들의 추측이 맞을지, 맞다면 철성과 새우의 로맨스 구도에 정혜가 어떻게 반응할지, 철성도 짝꿍 못 하는 미스터리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5·18특집 다큐 ‘38년, 엄마의 검은 침묵’

광주영어방송, 18일 방영

광주영어방송(GFN)이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자행된 성폭력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38년, 엄마의 검은 침묵’(사진)을 방송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1부 ‘소리 없는 외침’, 2부 ‘침묵 속에 핀 꽃’ 등 2부작으로 구성됐다.

‘소리 없는 외침’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성추행과 성폭행 등 국가폭력 실태를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내보낸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군에 의한 집단 성폭행 사실을 38년간의 침묵을 깬 피해자의 입을 통해 직접 세상에 알린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침묵 속에 핀 꽃’에서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민중혁명인 ‘더러운 전쟁’(Dirty War·1976-1983) 당시 군부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 사례를 소개한다.

아르헨티나의 국민과 정부가 어떤 노력



으로 성범죄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했는지,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현지 취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아르헨티나는 1980년 광주와 같은 민중혁명이라는 시민운동 경험과 그 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함께 안고 있다.

특히 광주 ‘오월 어머니회’와 같이 군부에 의해 자녀들을 잃은 ‘5월 광장 어머니회’의 집회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38년, 엄마의 검은 침묵’의 한국어 편이 18일 오후 7시, 영어 편이 25일 오전 11시에 각각 방송된다. /연합뉴스

이승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무대

23일 봉하마을서

가수 이승철(사진)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16일 가요계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승철은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리는 추도식에서 추모 무대를 선보인다. 이승철 노래 중 ‘그런 사람 또 없습니까’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곡으로 널리 불렸으나, 그는 아직 부를 곡명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도식은 애국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승철 추모 공연, 추도사, 추모영상과 유족 인사발,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 생중계된다. 노래패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추도식 말미에 시인합창단 30여 명과 함께 ‘아침이슬’을 부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추도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노무현시민학교 청소년봉하캠프 자원봉사자 조희연 노무현장학생이 낭독한다. 이 자리에는 유족을 비롯해 노무현재단 임원 및 참여 정부 인사, 정당대표, 지자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5 KBS 뉴스광장(광주)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성에 댜수들 (재)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백미 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45 KBS 뉴스(광주)	00 TV스쿨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55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2018 지방선거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 (재)	00 12 MBC 뉴스 20 이리와 안아줘 (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돌 보람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공룡 메가드		30 데일리뉴스 오작두 (재)	55 닥터 365
2	20 안녕! 괴물개별 시즌2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40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10 MBC스포츠 UEFA 챔피언스리그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여행배를 로그인 코리아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2 KBS 뉴스 5(광주) 13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크쇼 2 30 주간연예수첩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정글의 법칙 (재)
7	00 KBS 뉴스7 30 KBS 뉴스 7(광주) 35 한국인의 법상	50 인형의 집	15 전성에 댜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속보이뉴스TV 인사이트	55 이리와 안아줘 (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KBS 뉴스 9(광주) 45 KBS 뉴스 9			
10	00 KBS 스페셜 55 UHD 송터	00 슈츠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이웃집 할스 (재)	10 해피투게더	10 이불 밖은 위험해	10 김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0 ABU 국제공동제작 CARE7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스포츠 다이아리 50 2018 가정의 달 특집 영코트 휴먼다큐 사랑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의 길 (광양 구경 잘했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대사기행 <남미연가 알티플라노 고원기행 꽃의 시작 아티카마사막>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나노 07:30 띠띠뽀 띠띠뽀(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똥덩이 유치원 1~2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45 달랄라 뽀우 09:00 뽀뽀맨	09:15 두다다콩(재) 09:30 몰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에디블, 건포도스 팬케이> 11:20 세계대사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3:00 지식채널e 13:10 장수의 비밀 <똥! 속회 할매> 13:40 다큐 시선 14:30 레인보우 루비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래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우 16:30 달랄라 뽀우(재) 16:45 똥덩이 유치원1~2(재)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 1~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배워야 남쫄림 <남 주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7일(음 4월 3일 己酉)

子	36년생 참된 가치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48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갈구해 왔던 바를 이룬다. 60년생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2년생 파격적인 진보가 있겠다. 84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라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93, 15	午	42년생 판국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54년생 망망대대의 일일연주이다. 66년생 불청객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78년생 신년에 커다란 변화가 보인다. 90년생 지나라하게 파악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운의 숫자 : 54, 34
丑	37년생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다르다. 49년생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하라. 61년생 주변의 사정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임하면 그만이다. 73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85년생 처지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71, 16	未	43년생 속 뜻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의미 하느니라. 55년생 낮은 운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67년생 전도양양하니 대단히 희망적이다. 79년생 점진적인 정리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91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 행운의 숫자 : 86, 27
寅	38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이다. 50년생 추진하는 과정에 충실하라. 62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라. 74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만 한다. 86년생 과신하다보면 소홀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0, 54	申	44년생 머지않아 적응하게 될 것이니 묵묵히 임하라. 56년생 중도가 무방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68년생 판국을 뒤엎을 수도 있는 위력이다. 80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92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28
卯	39년생 함께한다면 상호간에 발전을 이룰 것이다. 51년생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63년생 겉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하느니라. 75년생 행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느니라. 87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행운의 숫자 : 96, 13	酉	45년생 무리한다면 머지않아 곤혹스러워지리라. 57년생 현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니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다. 69년생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다. 81년생 상대의 감응이 의외로 빠르다. 93년생 섬을 잘 해야 손해 보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40, 85
辰	40년생 작은 것이 쌓이면 볼품 터지듯 할 수 있다. 52년생 집착을 버리고 진용을 정비하는 것이 이익이다. 64년생 중차대한 위치에 이른다. 76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포기하라. 88년생 나서야 할 때 망설이면 신앙을 잃게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98, 07	戌	34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이지 보인다. 46년생 변화 가능성은 열여 두되 초과할 필요는 없다. 58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가 보인다. 70년생 행동에 정해를 줄만한 일이 일어난다. 82년생 대안이 없다면 그대로 두자. 행운의 숫자 : 19, 74
巳	41년생 상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다. 53년생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65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효과를 보게 될 것이나. 77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89년생 해박자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아예 포기하라. 행운의 숫자 : 01, 44	亥	35년생 탑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분이다. 47년생 손실 따르지만 보이지 않는 효과도 동반한다. 59년생 기준이 단순하다면 오류가 따른다. 71년생 개별적이고 체계적이어야 의미가 있느니라. 83년생 직접 보면서 행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67, 1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